뺍뺍뼯뼛- 경기문화재단 공동기획

제4834호 9

2004년 6월 19일 토요일

경기의 藝人匠人

경기도 무형문화재를 찾아서 <36>

제22호 고양 송포 호미걸이

‘농심(農心)은 곧 천심(天心)’이라 할만큼
농경국가인 우리나라는 삶의 터전인
농업을 소중히 여겼다.
사시사철 농작물을 키우는
과정 하나하나가 성스러울 정도로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키워내는 마음은 내것을 온전히 바치는
경건한 삶의 모습이다.
특히 넓은 평야가 펼쳐진 곳은
풍요로운 농사와 이에 따라
갖가지 농경문화를 꽃피웠다.

농사일 피로 푸는… 칠월칠석 맞이 놀이판

풍작을 기원하며 오래 묵은 당산나무에 천지신명께 대동제를 올리고 마을사람들은 고된 농사일에 흥을 북돋우기 위해 두레패를 앞세워 풍장을 울려댔다.

이는 단순히 놀고 먹는 모임이 아닌, 지역민이 한데 어우러져 정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단결을 과시한 것이다.

다수의 인원이 참가하는 농경문화에서 단합과 협동은 빠질 수 없는 전통이었고, 우리 선조들은 이를 위해 농사일이 거의 끝나는 두벌 김매기때 대대적인 놀이판을 꾸몄다. 각 지역마다 수확하는 작물과 지형적 여건 등에 따라 다채로운 농사소리와 가락을 선보였으며, 수확이 많은 곳일수록 신명난 놀이판이 대규모로 열린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민족의 젖줄 한강 하류에 위치한 옛 고양군 송포면 대화리(현재 고양시 일산구 송포동)에는 풍년을 기원하는 동시에 축원의 의미와 여름 내내 농사에 지친 주민들이 음식을 마련해 함께 어우러지는 고양 송포 호미걸이(경기도무형문화재 22호)가 명맥을 잇고 있다.

김매기 끝내고 ‘호미를 씻어 걸어둔다’서 유래
신명난 소리·놀이로 서로 격려하며 단결 과시

닮송포호미걸이보존회장 조경희씨

일산 신도시 건설과 함께 원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고양 송포 호미걸이보존회(보존회장 조경희) 회원 80여명을 중심으로 전승·보존은 물론 잊혀졌던 상아대소리, 용구재 이무기제, 십이지신 불한당 몰이, 쌍그네 놀이 등 7가지 전통 민속놀이를 발굴해 각종 경연대회와 문화행사에 선보이고 있다.

특히 ‘호미걸이’는 두벌 김매기가 끝나는 칠월 칠석을 전후해 농사의 피로를 풀고 풍년을 기원하며, 호미를 씻어 걸어 둔다는데서 유래했다.

‘호미걸이’는 ‘호미씻이’, ‘낟알이’, ‘머슴놀이’ 등으로도 불렸으며, 상산제(山上祭)를 시작으로 대동고사, 대동놀이, 유가제(遊街祭) 순으로 진행한다.

상산제는 마을 중심의 야산인 도당산에서 마을대표가 수호신인 도당신에게 풍년을 기원하며 제사를 드리고, 마을 여자들이 집안과 마을의 무사태평을 위해 음식을 차려놓고 고사를 지낸다.

이어 이웃 두레패를 초청해 대동놀이가 시작되는데 농악이 울리면 가장 오래된 구두레기는 초청받은 두레기의 온절을 받고 구두레기는 반절로 답례하는 ‘기절받기’가 진행된다.

흥이 무르익으면 멍석으로 짜서 만든 소가 등장하고 긴소리와 사두여, 양산도, 방아타령, 자진방아타령, 놀놀이, 자진놀놀이, 닐닐닐 상사도야, 훨훨이, 몸돌여 등 호미걸이 소리가 쾌활하고 명랑하게 울린다.

(모갑이) 이편 저편 좌우편 군방님네에에에
(두레꾼) 예이
(모갑이) 자, 오늘 날두 선선허구 김도 맬만허구 이 집이 떡살이 세가마, 서말, 석되, 서홉, 서작이니 옛날 옛적 젯날 젯적 떠꺼머리 총각적 헌 패래 고래적 나무 접시 맛있을 적에 노인네 허든 두레소리나 우럭우럭 해봅시다
(두레꾼) 예이
(모갑이) 에히에 에헤에 에헤에히에 에이 에헤에 허이 쏴아아아 이 이히요요 오오오 오호오 오오오
(한패) 에히에 에헤에 에헤에히에 에이 에헤에 허이 쏴아아아 이 이히요요 오오오 오호오 오오오
(긴소리 전문)

악기는 장구, 북, 꽹과리, 징과 함께 타지역에서 보기 힘든 ‘제금’이 추가로 들어간다.

한바탕 놀고난 후 두레패는 농악을 울리며 집안의 무사태평을 축원하는 유가제를 펼친다.

보존회장이자 전수조교인 조경희씨(45)는 “호미걸이는 노동요 10마당이 잘 보존돼 있으며, 집집마다 도는 유가제는 넉넉한 덕담(비나리)이 일품”이라고 말했다.

송포호미걸이는 지난 4월 타계한 보유자 김현규씨가 그 터전을 일궜다. 김씨는 50여년간 고양에서 전승되어 온 호미걸이와 두레소리, 12채가락, 상여소리를 체계화 시켰으며, 1999년에는 고양시청 앞 유림회관 지하에 연습실을 마련해 후진양성에 힘썼다.

지금은 전수조교인 조경희씨가 대를 이어 스승의 유지를 받들고 있다.

보존회원 80여명, 전통 민속놀이 발굴 선봬
학교 등서 보급활동… 전수회관 건립 절실

조씨는 “모든 일에 열심이었던 선생님 덕에 민요와 두레소리, 덕담, 호미걸이 12채가락 등 상쇠가 갖춰야할 모든 것을 다 배웠다”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선생님이 하셨던 것처럼 고양의 소리와 가락을 지키고 보급하는데 열정을 바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존회는 고양여성개발센터와 송산동사무소, 일산1동사무소, 김포여성회관 등에서 풍물반을 운영중이다. 지난해부터는 강사육성을 위한 연구생반을 따로 편성하고 있다.

조 회장은 “고양의 가락은 영남이나 남도에 비해 잔가락이 많아 예술적 가치가 높다”며 “전문강사를 육성해 강사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파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보존회는 유림회관 지하에 사무실겸 연습장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어둡고 칙칙한 공간에서 열악하게 명맥을 잇고 있다.

전국민속예술축제(2001년) 종합우수상과 함께 월드컵 공식축하공연 등 매년 10여회가 넘는 경력을 쌓은 송파호미걸이보존회는 다른 문화재와 달리 초·중·고등학교와 문화센터에서 활발한 보급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수회관 건립이 절실하다. 일산 신도시 건설과 함께 전통문화가 고사될 상황에서 전수회관은 체계적인 전수환경을 제공하고, 상설공연을 통해 관광문화상품으로써 한몫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형복기자 bok@kgib.co.kr

인터뷰 보존회장 조경희氏

“고양의 전통 가락·소리 어릴때부터 가르쳐야…”

“고양의 멋드러진 가락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죠”

송포호미걸이 소리는 물론 덕담과 상여소리, 몸놀림 그리고 각종 악기까지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고양 송포호미걸이 보존회장 조경희씨(45·고양시 덕양구 주교동)는 초·중·고등학교와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고양의 풍물장단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대중과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적극 참여할 생각입니다”

당찬 여장부로서 상쇠를 맡으며 80여명의 보존회원과 함께 호흡하는 조 회장은 학교교육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섬세한 잔가락이 일품인 고양의 전통장단을 어릴때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조 회장은 성저초교와 고양여종고, 고양고, 일산정보고 등에 무료봉사 하다시피 출강하고 있다.

“고양의 가락과 소리가 있는데도 고양시 관내에서 영남가락을 가르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영남가락도 좋지만 적어도 고양에 산다면 지역의 것을 알아야 지역에 대한 애착도 생기는 것 아닐까요”

조 회장은 지난 2002년 일산정보산업고 80여명을 지도해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에서 ‘고양쌍그네놀이’로 종합우수상을 받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현재 호미걸이 관련내용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으며, 보존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알려지면서 문화센터 등 여러 곳에서 강사파견을 요청하고 있어 강사배출을 위한 특별반까지 마련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조씨는 ‘제1회 조경희 두레소리·12채가락 발표회’를 열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맘껏 발휘했다. 전통문화 계승은 물론 ‘용구재 이무기제’ 등 지역의 전통문화 발굴과 교육 등 1인 3역을 거침없이 해내는 조씨는 고양시 청소년민속예술단장, 전국두렛소리보존회 총무 등을 맡고있다.

/이형복기자 bok@kgib.co.kr